

가슴으로 찍고 말한다


『사진이란 무엇인가』 최민식 지음, 현문서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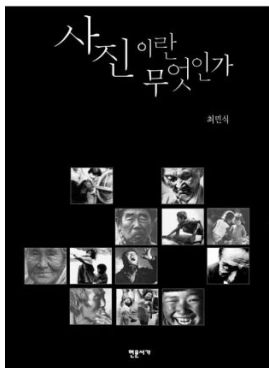
안치윤 ·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 연극평론가

나는 2006년 1월 17일자 일간 신문에 난 한 장의 사진을 주목해야만 했다. 계속된 단식으로 누워있던 지울스님의 얼굴 사진. 함겨운 표정, 반쯤 눈을 뜬 미라 같은 모습, 28.3kg의 몸무게, 호흡곤란을 보여주지만 현 상태를 지속할 경우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이 한 장의 사진은 알려주고 있었다. 사진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회에 던지고자 했던 지울스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달라는 호소이기도 했다.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울림을 전하고 있었다. 과거를 담고 있는 사진이 그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의 전언이 되고 있었다. 이런 사진 앞에 서면 시선은 고정되기 마련이고, 제 스스로 사진 속 시선의 노예가 되어 반성하게 된다. 사진의 배경이 확대되고, 보는 이는 너른 인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내게는 지울스님의 얼굴이 들어있는 '종이거울'인 사진이 그러했다. 하루 종일 사진의 시선 앞에 놓여있었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두 번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 같은 한 장의 사진이 보는 이를 현실로 이끄는 끈 역할을 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분노했고, 절망했고, 감동을 받고 희망을 다시 주술려야 했다.

바이흐로 사진 찍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핸드폰에 달려있는 것부터 아주 작은 디지털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손쉽게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찍은 사진은 바로 보고 그 자리에서 이리저리 전송할 수도 있다. 저장이 용이해졌고, 전달이 가능해졌으며, 찍고 찍히는 것을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사진의 기원처럼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 되고도 남았다. 그 사이 우리들은 사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사진에 대한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사진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 것이다. 아무도 사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말하지 않는다. 사진은 홍수처럼 넘쳐나고, 사진을 보고 글을 덧붙이는 작가들의 수필집들도 갈수록 늘어났지만 사진 그 자체에 대해 질문하는 전문가의 글은 줄어들고 있다. 사진을 찍는 표현기법과 방법론에 관한 책은 많지만 사진의 본질적 의미와 작가정신에 대해 말하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제목처럼, 사진에 대해서 묻고 있다. '너 누구냐'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사진에 대고 하고 있다. 그 질문은 다시 '나는 사진을 왜 하는가'로 이어지고, 그것을 '살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과 등가로 놓는다. 이것은 사진에 대한 물음은 곧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묻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저자 최민식은 책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사진들은 내가 살았던 시대와 역사의 증언이다. 그 사진에 담긴 서민들은 모두가 생명력을 가진 존재이며, 내 작품의 단골 주인공이기도 하다. 서민들의 삶을 통해 나는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눈을 뜰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손에 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다. 사진작가가 작품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순간을 렌즈에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안에는 인간애에 뿌리를 둔 작가정신이 있다. 그리고 사진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존재한다. 사진은 모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도구다.", "나의 사진은 세상을 향한 발언이며 싸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이다. 나는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과 분노,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을 믿는다."

이 책에는 저자가 쓴, 사진에 대한 아름답고도 분명한 철학들이 수도 없이 많다. 가령 이런 글을 보라. '렌즈는 인간을 향해 열려있다', '인생을 찍는다', '사진은 사상이다', '결정적 순간으로 영원을 잡아라' 책의 말미는 저자가 사랑한 유명한 작가들의 사진과 설명으로 채워져 있다. 사진으로도 같은 사상을 지녔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지들에 대한 사상적 순례기와 같은 부분이다. 아름다운 보너스. 



『사진이란 무엇인가』 최민식 지음